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

-『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김창락*

1. 들어가는 말

이른바 『성경전서』(1911년, 이하 『구역』)는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 출판된 신·구약 성경전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공적 기관의 위임을 받은 번역진이 번역하여 한국 교회의 공인을 받은 최초의 성경이다.¹⁾ 이 『구역』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그 위업을 축하하고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구역』의 번역상의 공과(功過)를 철저히 밝혀 새로 나올 번역에서 그 장점은 계승하고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의 목표는 『구역』의 개개 구절을 두고 잘잘못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구역』의 번역 과정에 작용한 번역상의 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원칙이었는지 밝히고, 번역 원칙이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수없이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더 정확하고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기존 번역들의 공과를 적시하여 번역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구역』 『마태복음서』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다음 호에서 『구역』 『마태복음서』의 과오와 개선 방안을

*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신약학

1) 본문과 각주에서 밑줄 친 부분은 내용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별표(*)는 내용을, 샵표(#)는 문장 단위를 표시한다.

나누어 기술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 연구가 우리말 성서의 번역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시간 제한으로 『마태복음서』 하나만 표본으로 삼은 것은 아쉽다.

2. 장점으로 작용한 원칙들

『구역』은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말다운 문체로 번역되었다. ‘우리말다운 문체’는 번역의 장점에 속한다. 『구역』이 어떻게 외국어 투의 문체를 피하고 고유한 우리말 문체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1. 동사의 연결형을 줄지어 사용하여 하나의 의미 단락을 대체로 한두 개의 문장으로 작성했다

『구역』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²⁾는 문장론적으로 단 한 개의 문장-중문(重文)이든지 복문(複文)이든지 혼문(混文)이든지-으로 구성된다. 8절이 ‘되나니라’는 동사의 종결형으로 문장이 끝나고 9절에 새로운 문장이 덧붙여지지만 9절은 3절의 ‘골으샤되’의 대상을 가리키는 직접 화법의 내용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의미상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다. 즉, 직접 화법은 아무리 많은 독립적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전체로 하나의 종속문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³⁾

2) 3 예수ㅣ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야 골으샤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시 더러는 길가에 썩러지매 새가 와서 주어먹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작 밧헤 썩러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썩이 곳 나오나 6 회가 돛아 썩인즉 뿌리가 업서 마르고 7 더러는 가시 덩불 속에 썩러지매 가시가 자라서 괴운이 막히고 8 더러는 도흔 짜에 썩러지매 결실흙이 혹 빅빅도 되고 룡십빅도 되고 삼십빅도 되나니라 9 귀 잇는 자는 드러라 하시더라(13:3-9).

『게일(Gale) 역』은 9절을 ‘드를지어다’로 끝마쳤다. 즉, ‘드를지어다’ 다음에 ‘흐시더라/흐시니라’를 생략한 것은 문장을 불완전하게 종결지는 것이다(『홍길동전』같은 고대 소설에 ‘굴으되’ 다음에 말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문장을 끝맺지, 굳이 ‘흐더라’ 또는 ‘흐니라’와 같은 보고형 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생략된 문장 형태이지 본래적인 완전한 문장 형태라고 할 수 없다.).

18장 23-35절⁴⁾은 13절이나 되는 긴 비유인데 『구역』은 이것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했다. 『개역』은 비유의 적용문인 35절을 비유 이야기 자체와 분리하여 별개의 문장으로 떼어 놓았으며, 『게일 역』은 26절과 27절을 각각 독립적인 문장으로 번역했다.⁵⁾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의도였다면 ‘갑흐리이다’ 다음에 ‘흐니라’를 덧붙여야만 어법에 맞는다.⁶⁾

2장 1-11절⁷⁾은(≠ 표시를 한 곳이 한 문장이 끝나는 곳이다.) NTG

-
- 3)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마침표나 ‘윗점’(반쌍점)이 붙은 문장을 하나의 문장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 8개 문장이다. KJV와 ASV로는 각각 7개 문장이다.
- 4) 23 이런고로 턴국은 었던 님군이 종과 회계흐는것 흐오니 24 회계홀째에 금 만량중 빗진자 흐나를 다려오매 25 갑홀 거시 업는지라 주인이 분부흐야 그 몸과 처와 즈식들과 잇는 거슬 다 팔아 갑게 흐라 흐되 26 그 종이 업되여 절흐고 굴으되 주여 내게 춤으쇼셔 다 갑흐리이다 흐거늘 27 그 주인이 불상히녁여 노하 보내며 그 빗슬 탕감흐야주엇더니 28 그 종이 나가다가 제게 빅량 빗진 동관 흐나를 만나 곳 부드러 목을 잡고굴으되 빗슬 갑흐라 흐매 29 그 동관이 업되여 근구흐야 굴으되 나를 춤아주쇼셔 갑흐리이다 흐되 30 허락흐지아니흐고 이에 가서 빗슬 갑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관들이 그 흐는 거슬 보고 심히 민망흐야 주인에게 가서 그 흐던 일을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그 사름을 불너다가 굴으되 악흔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빗슬 탕감흐야주엇거늘 33 네 동관을 불상히 녀기를 내가 너를 불상히녀임과 갓치 흠이 맞당치아니흐나 흐고 34 주인이 노흐야 빗슬 다 갑도록 옥졸에게 붓쳤으니 35 너희 각 사름이 춤 마음으로 형대의 죄를 용서흐지아니흐면 내 턴부도 이와 갓치 너희에게 흐시리라(18:23-35).
- 5) 26 그 臣下가 업되여 절흐고 굴으되 暫間 춤으쇼셔 갑흐리이다 27 그 王이 불상히 녀여 그 빗슬 蕩滅흐고 노하보내엇더니(18:26-27).
- 6) NTG, KJV, ASB는 12개 문장으로 구성된다.

원문으로는 8개 문장, KJV와 ASB는 9개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구역』은 단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첫째 문장은 1절에서 6절까지고, 둘째 문장은 7절에서 10절까지, 셋째 문장은 11절이다. 8절 끝에는 어법상으로 ‘하니’ 또는 ‘하니라’를 붙여야 완벽한 문장이 된다. 만일 ‘하니라’를 붙였다고 보면, 이 단락은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셈이 된다. 『게일역』⁸⁾은 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절과 4절과 7절 끝에는 ‘하니라’를 붙여야만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개역』은 『구역』과 똑같은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1 헤롯 왕 새에 예수의서 유대 벳엘네헬에서 나시니 박스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니르러 몰하디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더의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리라 4 왕이 모든 제스제장과 빅성의 서기관을 모화 그리스도 | 어디서 나갓느노 무르니 5 골으디 유대 벳엘네헬이오니 선지자로 이러케 기록하였스디 6 유대 짜 벳엘네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꺄장 적지아니호도다 네게서 님군이 나서 내 이스라엘 빅성을 기르리라 하섯느이다 # 7 이에 헤롯이 꺄만히 박스를 불너 별이 나타난 새를 꺄세히 뭇고 8 벳엘네헬으로 보내며 일너 골으디 가서 아기를 꺄세히 차자 맞나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의²⁾ 게 경비하리라 (하니) 9 박스가 왕의 말을 듣고 갈시 동방에서 보이던 별이 문득 압호로 인도하야 아기 잇는 곳까지 니르러 그 우에 긔치느니라 10 별을 보고 꺄장 크게 긔브고 긔버하더라 # 11 집에 드러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 업디여 아기의 경비하고 보비함을 열어 레물을 드리니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라(2:1-11).
- 8) 1 헤롯王새 예수 | 유대 벳엘네헬에서 誕生하³⁾시니 博士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니르러 골으디 2 유대인의 王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東方에서 그 별을 보고 敬拜하러 왔노라 (하니라)# 3 헤롯王이 듣고 꺄히 잡잡하야하며 온 예루살렘도 騷動하리라 4 王이 祭司諸長과 百姓의 書記官을 모화 무르디 그리스도 | 어디서 나갓느노 (하니라)# 5 골으디 유대 벳엘네헬이라 先知者가 記錄하였스디 6 유대 짜 벳엘네헬아 너는 第一적은 城이 아니로다 王이 네게서 나와서 내 百姓 이스라엘을 긔리라(미 5:2) 하였느이다 # 7 헤롯이 꺄만히 博士를 불너 별이 나타난 새를 仔細히 뭇고 8 벳엘네헬으로 보내며 일너⁴⁾골으디 가서 아기를 힘써 차자 맞나거든 내게 告하라 나도 가서 敬拜하리라 (하니라)# 9, 10 博士가 王의 命을 듣고 갈시 東方에서 보이던 별이 문득 나타나거늘 크게 긔버하더니 그 별이 압호로 引導하야 아기 잇는 집우에 긔치느니라 11 집에 드러가 아기와 그 母親 마리아를 보고 업디여 아기의 敬拜하고 보비함을 열어 禮物를 드리니 黃金과 乳香과 沒藥이라(게일 역).

4장 1-11절⁹⁾은 NTG 원문으로는 11개 문장, KJV와 ASV로는 각각 10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개역 역』¹⁰⁾은 6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절 끝과 9절 끝에는 ‘하니라’라는 끝맺음 낱말을 붙여야 하는데 생략했다. 문장론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다. 『개역』은 5개의 문장이다.¹¹⁾

9) 1 그 때에 예수 | 성신의게 잇쓸리니여 광야에 가샤 마귀의게 시험을 밧으실식
2 스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시더니 3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와서
굴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야 썩이 되게 하라 하니
4 예수 | 되답하야 굴으샤되 기록하였스되 사람이 썩으므로만 살 거시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시라 하였느니라 하시거늘 5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드러다가 성던 꼭다이에 세우고 6 골아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썩여느니라 대개 기록하였스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야 그 스자들의
게 분부하샤 손으로 너를 밧드러 발이 돌에 부딪치지안케 하시리라 하였다 하니
7 예수 | 닐으샤되 썩 기록하였스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말나 하였다 하시되
8 마귀가 썩 다니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던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굴으되 만일 내게 엽디여 절하면 이 모든 거슬 주리라 하니 10 이에 예수 |
말씀하샤되 사단아 물너가라 기록하였스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히하고 홀로 그를
섬기라 하였다 하시니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썩나고 텨스는 니르러 슈종드더라
(4:1-11).

10) 1 때에 聖神이 예수를 引導 하야 曠野로 나아가 魔鬼의 試驗을 밧게 하시니
2 예수 | 四十晝夜를 禁食하시고 주리신지라 3 試驗者가 와서 굴으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도 食物이 되게 하라 (하니라)# 4 예수 | 굴으샤되
經에 닐렸스되 사람이 食物로만 살지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니라
(신 8:3) 하였나니라# 5 魔鬼가 거룩한 城으로 드러다가 聖殿簷牙썩해 세우고
굴으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썩여 느니라 經에 닐렸스되 하나님이 그 使者
를 命하심이어 너를 護衛하시리로다 그 손으로 붓듬이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안케 하시리로다(시 91:11, 12) 하였나니라# 7 예수 | 굴으샤되 썩 닐렸스되
主 너의 하나님을 試驗치 말나(신 6:16) 하였느니라# 8 魔鬼가 썩 드리고 至極히
높은 山에 올라가 天下萬國의 榮光을 보이며 9 굴으되 내게 敬拜하면 다 주리라
(하니라)# 10 예수 | 굴으샤되 사단아 물너가라 經에 닐렸스되 主 너의 하나님만
敬拜하라(신 6:13) 하였느니라 11 하시니 魔鬼는 썩나고 天使가 니르러 隨從드
더라(개역 역).

11)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
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역』이 순수한 우리말 고유의 유려(流麗)한 문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구역』에 참여한 우리 한국인 선배들이 다행스럽게도 그리스어 원문을 몰랐고 영어 어법에도 몰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게일 선교사는 원어에도 능통하고 우리말도 남달리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구역』의 우리말 문체의 유려성(流麗性)을 살리기보다는 원문의 문장 구조에 좀 더 일치하는 번역 방법을 택했다. 『개역』은 5개 문장으로 구성되었는데 3절 끝과 9절 끝에 ‘하나라’는 끝맺음 낱말을 생략하여 불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개역』은 『게일 역』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문장 구성 원칙을 철저히 세우지 못했다.

25장 14-31절¹²⁾에서도 한 개의 문장으로 번역된 것을 후대의 두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개역).

12) 14 텃국은 쏘흔 흐 사람이 다른 지방에 갈제 그 좃들을 불너 잇는 거슬 맛김과 마흐니 15 각각 그 직간대로 흐나는 금 닻량중을 주고 흐나는 두량중을 주고 흐나는 흘량중을 주고 썬넛더니 16 금 닻량중 밧은 사름은 바로 가서 장스흐야 쏘 닻량중을 늣기고 17 두량중 밧은 사름도 가서 그 모양으로 흐야 쏘 두량중을 늣겼스되 18 흘량중 밧은 사름은 가서 싸흘 파고 그 쥬인의 돈을 그초앗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좃들의 쥬인이 도라와 그 좃들과 흠씩 회계홀시 20 닻량중 밧앗던자는 닻량중을 더 가지고 와서 곶으되 주여 내게 금 닻량중을 주섯느디 내가 쏘 닻량중을 늣겼스웁느이다 흐거늘 21 그 쥬인이 닢으되 잘 흐엿도다 착흐고 신실흐 좋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흐엿스매 내가 만흔 거스로 내게 맞기리니 드러와 네 쥬인의 즐거움을 누릴지어다 흐고 22 두량중 밧앗던 차도 와서 곶으되 쥬여 내게 금 두량 중을 주섯느디 내가 쏘 두량중을 늣겼스웁느이다 흐거늘 23 그 쥬인이 닢으되 잘 흐엿도다 착흐고 신실흐 좋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흐엿스매 내가 만흔 거스로 내게 맞기리니 드러와 네 쥬인의 즐거움을 누릴지어다 흐고 24 흘량중 밧앗던 차도 와서 곶으되 쥬여 그디는 곳은 사름이라 심으지어닌 디서

가지 번역이 여러 토막으로 나누려고 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달란트 비유는 17개 절(節)로 구성된 긴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말 『구역』의 번역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막힘 없이 단숨에 낭독할 수 있으며 듣는 사람도 잔잔한 강물에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역』은 이것을 일곱 토막으로 끊었고,¹³⁾ 『개역』은 네 토막으로 끊어 놓았다.¹⁴⁾

-
- 거두고 헛치지아닌 디셔 모호느줄을 내가 알앗스니 25 이럼으로 내가 두려워하야 나가서 주의 금을 싸에 금초앗스매 본전을 맞으쇼셔 헝거늘 26 그 주인이 디답하야 굴으디 악하고 개으른 좋아 나는 심으지 아닌 디셔 거두고 헛치지아닌 디셔 모호느줄노 내가 알앗스즉 27 네가 맞당히 내 돈을 취리하는 사름의게나 두엇다가 내가 도라올 쎄에 내 본전과 변리를 맞게 흘 거시니라 헝고 28 그 종의게서 금 흘랑중을 쎄아서 열랑중 가진 사름의게 주어라 29 대개 아모 사름이던지 잇는 자의게는 더 주어 풍족하게 헝고 업는자의게는 잇는 것씩지 쎄아스리라 30 쓸디업는 중을 맞겿 어두은 디로 대어쫓치라 거기서 슣히 울고 니를 갈니라(25:14-30).
- 13) 14 天國은 한사름이 다른 地方에 갈쎄에 그종들을 불너 所有를 맞김과 갓흐니 15 各其才能대로 하나는 金 다섯달란트를 주고 하나는 두달란트를 주고 하나는 한달란트를 주고 쎄낫더니 16 金다섯달란트 맞은 사름은 바로가서 장스하야 쎄 다섯달란트를 넘기고 17 두달란트 맞은 사름도 그 模樣으로 하야 쎄 두달란트를 넘겿스되 18 한달란트 맞은 사름은 가서 싸를 파고 그 主人의 돈을 금초니라 * 19 오랜後에 主人이 도라와 그 종들과 會計홀시 20 다섯 달란트 맞앗던 者는 다섯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굴으디 主여 내게 金다섯달란트를 주섯기로 쎄 다섯달란트를 넘겿느이다 * 21 그 主人이 닐으디 잘하엿다 착하고 信實호 좋아 네가 적은 일에 信實하엿스즉 내가 만흔 일노 내게 맞기리니 드러와 내 主人의 즐거움을 누릴지이다 * 22 두달란트 맞앗던 者도 와서 굴으디 主여 내게 金두달란트를 주섯기로 쎄 두달란트를 넘겿느이다 * 23 그 主人이 닐으디 잘하엿다 착하고 信實호 좋아 네가 적은 일에 信實하엿스즉 내가 만흔 일노 내게 맞기리니 드러와 내 主人의 즐거움을 누릴지이다 * 24 한달란트 맞앗던 者도 와서 굴으디 主여 주는 곳은 사름이라 심으지 아닌디셔 거두고 헛치지 아닌디셔 모호느줄을 내가 앓으로 25 두려워하야 나가서 主의 金을 싸에 금초앗섯스오니 本錢을 맞으쇼셔 * 26 그 主人이 굴으디 惡하고 개으른 좋아 내가 심으지 아닌디셔 거두고 헛치지 아닌디셔 모호느줄노 내가 알앗거든 27 내 돈을 取利하는 사름의게다 두엇다가 내가 도라올 쎄에 내 本錢과 邊利를 맞게 흘거시니라 28 그 종의게서 金한달란트를 쎄아사 열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大抵 아모 사름이던지 잇는 者의게는 더 주어 豊足하게헝고 업는 者의게는 잇는 것씩지 쎄아스리라 30 쓸디업는 중을 맞겿 어두운디 내어쫓츠라 거기서 슣히

『구역』과 『게일 역』이 공통으로 범한 문장론적 과오는 30절의 맨 끝말 ‘있으리라’ 다음에 이 비유 전체의 문장을 끝맺는 낱말인 ‘하니라’를 덧붙이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개역』은 이 과오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게일 역』과 『개역』이 공통으로 범한 문장론적 과오는 『게일 역』에서는 18절, 20절, 21절, 22절, 23절, 25절 끝에 ‘하니라’를, 『개역』에서는 20절, 22절, 25절 끝에 ‘하니라’를 각각 덧붙이지 않은 것이다. 만일 ‘하니라’/‘하니라’를 굳이 덧붙이지 않고 완벽한 문장이 되게 하려면 ‘굴으되’/‘가로되’라는 연결형 동사를 ‘말하였다’/‘말하였다’라는 종결형 동사로 바꾸어야 한다.

찬지 비유¹⁵⁾는 14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이다. 이것을 『구역』은 한

울고 니를 갈니라(게일 역).

- 14)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회계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맡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개역).

개의 문장으로 옮겨 놓았지만 한 곳에 문장론적 과오를 범했다. 14절을 이른바 이 비유 이야기의 적용문으로 보는 편이 13절의 임금의 발언 내용으로 보는 편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주석적으로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어느 편을 택하든지 거기에 걸맞는 문장 표현을 했느냐 못했느냐이다. 『구역』은 14절을 적용문으로 이해했다. 만일 임금의 발언 내용이었다면 13절 끝에 ‘하니’를 붙여서는 안 된다. 『구역』이 14절을 적용문으로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13절을 ‘하니’가 아니라 ‘하니라’로 끝맺어야 했다. 『게일 역』은 『구역』의 이 과오를 간과하지 못하고 이 과오를 꼭 그대로 답습했으나 『개역』은 이 과오를 바로 잡았다. 즉, 13절을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니라”로 번역했다. 『게일 역』은 9절과 12절을 ‘請 ㅎ야오라’와 ‘드러왔나뇨’로 끝맺어 이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9절과 12절을 뒷 절과 단절된 독립적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請 ㅎ야오라’와 ‘드러왔나뇨’ 다음에 ‘하니라’를 덧붙여야 한다.

『구역』은 놀라운 솜씨로 포도원 일꾼에 대한 긴 이야기¹⁶⁾를 하나

15) 1 예수ㅣ 다시 비유로 말씀ㅎ야 곶으샤되 2 텃국이 었던 님군과 ㄹ호니 그 아들을 위ㅎ야 혼인 잔치를 베풀고 3 그 좃을 보내여 청ㅎ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ㅎ엿더니 오지아니ㅎ겨늘 4 다시 다른 좃을 보내며 곶으되 가서 청ㅎ 사람의게 ㄹ으되 내가 임의 음식을 장만ㅎ야 노코 소와 살진 증싱을 잡고 쑤 모든 거슬 ㄹ초앗스니 혼인 잔치에 오쇼서 ㅎ라 ㅎ되 5 더희가 도라보지도 안코 가되 ㅎ나는 제 ㅂ해 가고 ㅎ나는 저즈에 가고 6 그 ㄹ은 자들은 좃을 잡아 ㄹ용ㅎ고 죽이니 7 님군이 노ㅎ야 군스를 보내여 그 살인ㅎ 자를 멸ㅎ고 성을 불살오고 8 이에 좃드려 ㄹ으되 혼인 잔치는 예비ㅎ였스나 청ㅎ 사람들은 합당치아니ㅎ니 9 큰 길거리에 가서 아모 사람이던지 맞나는데로 혼인 잔치에 청ㅎ야 오니라 ㅎ되 10 좃이 길에 나가 악ㅎ 자나 선한 자나 맞나는데로 모도 다러오니 손이 혼인 자리에 ㄹ득ㅎ지라 11 님군이 손을 보러 드러울식 ㅎ 사람이 레복을 ㄹ피지아니ㅎ 거슬 보고 12 곶으되 친구여 엿지 레복을 ㄹ피안코 여긔 드러왔느냐 ㅎ니 손이 유구무언이어늘 13 님군이 스환의게 말ㅎ되 그 ㅂ족을 결박ㅎ야 ㅂ짓 어두온 ㅎ되 던지라 거긔서 슌히 울고 니를 갈니라 ㅎ니 14 대개 청ㅎ을 ㅂ은 자는 만ㅎ되 ㅂ힘을 ㄹ은 자는 적으니라(22:1-14).

16) 1 대개 텃국은 집 주인이 일은 아춤에 나가 품군을 엿어 포도원에 드러보냄과 ㄹ호니 2 품군과 ㅎ로는 혼훈식 주마 작덩ㅎ야 포도원에 드러보내고 3 스시초에

의 문장으로 엮었다. 그러나 여기에 문장론적 과오가 몇 개 있는데, 후대의 두 번역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6절 끝에 ‘하니’를, 16절 끝에 ‘하니라’를 덧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인데, 『게일 역』과 『개역』은 이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다. 『게일 역』은 7절 중에 ‘쓰는 이가 업느이다’ 다음에 ‘하니’라는 연결형 동사를 생략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7절 끝의 ‘하고’를 『개역』이 ‘하니라’라는 종지형 동사를 사용하여 앞뒤 문장을 둘로 나눈 것은 내용에 더 잘 어울리는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과오는 다음 기적 이야기¹⁷⁾에서 많이 발견된다. 『구역』은 네 곳에 필요한 연결형 동사를 생략했고, 『게일 역』은 이 과오를

나가 장터에 섰는 사름들을 보고 4 더희드려 닐으되 너희도 포도원에 드러가면 내가 삭을 맞당히게 주리라 하니 그 스람들이 가고 5 오시중과 신시초에 또 나가 그와 갓치 하고 6 유시초에 나가 또 섰는 사름들을 보고 곁으되 너희는 엇지 종일토록 한가히 여기 섰느뇨 (하니) 7 대답하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업느이다 하니 주인이 곁으되 너희도 포도원에 드러가라 하고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적이드려 닐러 곁으되 품군들을 불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야 몬져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9 유시초에 온 자들도 각각 은 혼푼식 밧거늘 10 몬져 온 자들이 와서 더 밧을줄 알앗더니 더희도 혼푼식 밧은지라 11 밧으매 집주인을 완망하야 12 곁으되 우리는 종일 슈고하고 더위를 밧았느디 엇지 나중에 와서 반시 일 혼 사름과 갓치 주느뇨 하니 13 주인이 그 중에 혼 사름드려 닐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거시 업노라 내가 나와 은 혼푼식 작덩치아니했느냐 14 네 삭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름을 너와 갓치 주는 거시 내 뜻이니라 15 내 물건을 내 뜻대로 쓰는 거시 올치아니하냐 내가 참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갓치 나중 잇는 자가 몬져 되고 몬져 잇는 자가 나중 되리라 (하니라), (20:1-16).

- 17) 32 예수ㅣ 데자를 불너 곁으샤되 무리가 나와 흠씩 잇는지 사흗에 먹을 서기 업스니 내가 민망하도다 길에서 곧비홀가 하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흐시매) 33 데자들이 곁으되 들에 잇스니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빅부름만큼 썩을 엇으리잇가 (헉거늘) 34 예수ㅣ 곁으샤되 너희의게 썩이 몇 덩이나 잇느냐 (흐시니) 35 예수씩서 무리를 명하샤 싸에 안치시고 36 썩 낱곱 덩이와 그 썩션을 가지샤 사례히시고 썩여 데자의게 주시니 데자들이 무리들의게 주매 37 다 빅불니 먹고 늙은 부스럭 이를 주는 거시 낱곱 바구미에 찻고 38 먹은 자가 너인과 으희 외에 스천 사름일너라(15:32-38).

답습했다. 『개역』은 34절 끝에 ‘하거늘’을 덧붙이고 나머지는 『구역』의 전례를 따랐다. 그리스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의 서구어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고유한 품사가 있다.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等位接續詞)와 종속 접속사(從屬接續詞)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나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갖지 않거나 명사절, 형용사절과 같은 종속절을 내포하지 않은 문장을 단문(單文)이라 하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문이 대등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중문(重文)이라 하며, 단문에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연결되거나 단문 속에 어떤 종속절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복문(複文)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접속사라는 고유한 품사가 없다. 영어에서 두 낱말이나 두 단문을 대등 관계로 연결하려면 그 사이에 대등 접속사 ‘그리고’(and)를 삽입한다. 즉, ‘언 애플 앤 어 피어(an apple and a pear)’라고 하거나 ‘윈터 이즈 오버 앤 스프링 해즈 컴(Winter is over and spring has come).’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사과와 배’,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라고 표현한다. ‘와’와 ‘고’는 고유한 품사가 아니고 ‘와’는 명사에 붙는 연결형 조사(助辭)이고 ‘고’는 동사의 연결형 활용 형태의 하나이다.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여러 가지 형태의 연결형으로 변화시켜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 넘어갈 수 있다. 문장의 이러한 연결 방식은 대등 접속사로 연결된 서구어의 중문을 단순히 우리말로 접속사 없이 대응하는 중문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등 접속사로 연결된 서구어의 복수 중문이 여러 개의 구슬이 접속사라는 느슨한 매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면, 동사의 연결형으로 연결된 우리말의 복수 중문은 구슬을 실로 꿰어서 하나의 염주(念珠)처럼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통일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윈터 이즈 오버(Winter is over)’라는 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장을 이룬다. 이 말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앤드(and)’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거나 듣기

전까지는 이 문장에 다른 무엇이 이어질 것이라는 필연성을 예상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우리말에서 ‘겨울은 가고’라는 말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이 말에 다른 어떤 말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예상한다. 즉, 우리말에서 중문은 서구어에서와는 달리 앞뒤 문장 사이가 하나의 끈으로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한 덩어리로 엮여져 있는 듯한 감(感)을 준다. 마태복음 1장 2-6절을 살펴보자.¹⁸⁾

NTG 원문은 위의 단락을 14개의 단문을 ‘테’(δε)라는 접속어로 연결해서 한 개의 중문으로 만들었다. 14개 개개의 단문은 똑같이 ‘낳았다’(εγεννησεν)라는 단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여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되었다. NTG 원문이나 KJV 번역문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그런데… 그리고/그런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이다. 이와 같은 글을 읽는 것은, 비유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열세 번 완전 정차를 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서 최종 목적지에 가까스로 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와 달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코 이삭은 야곱을 낳코…이새는 다윗 왕을 나흐니라”라는 『구역』의 번역문을 읽는 것은, 열세 번 사용된 ‘낳코’가 동사의 중지형이 아니라 연결형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 번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여 단 한 번도 정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줄곧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구역』의 이러한 문체를 문체론적으로 무엇이라 칭할 수 있는가? 토막글이 아니고 문장이 길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만연체(蔓衍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구역』의 문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고전 소설은 읽기 쉽고 듣기 쉬운 문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체를 낭독체(朗讀體)라 한다면 『구역』의 문체를 낭독체라 부를 수

18)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코 이삭은 야곱을 낳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코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코 헤스론은 람을 낳코
 4 람은 아미나답을 낳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코 나손은 살몬을 낳코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코
 6 이새는 다윗 왕을 나흐니라(구역)

있을 것이다. 낭독체 문장은 물 흐르듯이 술술 흘러간다는 점에서 『구역』의 문체에 유려체(流麗體)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이다. 또 판소리의 가사를 판소리체라 부른다면 『구역』의 문체는 판소리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주의 기도문 번역

번역은 반역(反逆)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번역이라고 해도 원문의 본래적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시(揭示)한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번역문이 원문보다 월등히 나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역』의 주기도문 번역¹⁹⁾이 그러하다.

주기도문은 맨 처음의 부름말과 맨 끝의 송영 부분을 빼면 여섯 개의 청원(請願)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일흠을 거룩하게 흠옵시며,
- (2) 나라이 림흠옵시며,
- (3) 뜻이 하늘에서 일운 것 께치 짜에서도 일우어지이다,
- (4) 오늘날 우리의게 일용할 량식을 주옵시고,
- (5) 우리가 우리의게 죄지은 자를 샤햐야 준 것 께치 우리 죄를 샤햐야 주옵시고,
- (6)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흠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햐옵쇼셔.²⁰⁾

19)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흠을 거룩하게 흠옵시며 10 나라이 림흠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운 것 께치 짜에서도 일우어지이다 11 오늘날 우리의게 일용할 량식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의게 죄지은 자를 샤햐야 준 것 께치 우리 죄를 샤햐야 주옵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흠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햐옵쇼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잇스옵느이다 아멘(6:9-13).

20) 여섯 번째 청원을 두 개의 청원으로 썸할 것이 아니라 겹으로 된 한 개의 청원으로 썸해야 한다.

『구역』은 이 여섯 개의 청원을 두 문장으로 구성했다. 첫 세 가지 청원은 ‘…하며 …하며’라는 두 개의 연결형 동사를 사용하여 이어 놓은 한 개의 문장이며, 다음 세 가지 청원은 ‘…하고 …하고’라는 두 개의 연결형 동사를 사용하여 이어 놓은 한 개의 문장이다. NTG 원문은 첫 세 가지 청원을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세 개의 단독 문장으로 구성해 놓았다. 다만 첫째 청원문과 둘째 청원문 끝에 완전 중지 부호 대신에 ‘윗점’(쌍점) 부호를 붙였다. 나머지 세 가지 청원도 각각 독립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다섯째 청원문 앞과 여섯째 청원문 앞에 ‘그리고’(καί)라는 등위 접속사를 붙여서 그 세 가지 청원이 의미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음을 어렵듯이 내비친다. KJV, ASV, RSV 등의 영어 번역본들도 대체로 NTG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NTG는 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사용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만 했는가?

처음 세 가지 청원과 나머지 세 가지 청원의 내용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들이다. 처음 세 개의 청원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사건과 관련되고, 나머지 세 청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사와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땅 위에 이루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즉 궁극적인 구원 사건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동일한 종말적 구원 사건의 내용을 세 가지 다른 측면으로 드러내어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사건을 지칭하는 대표적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인간들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절대로 선후 관계로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종말적 구원 사건의 세 가지 측면일 따름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종말적 구원 사건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결된다. 그 셋 가운데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는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항인데 이 셋은 내용상 서로 연관이 없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곧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시험에서 구함을 받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사항은 각각 별개의 문젯거리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항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절박하게 필요한 세 요소를 구성하는 관련성이 있다.

처음 세 청원이 한 가지 종말적 구원 사건의 세 가지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나머지 세 가지 각각 독립된 청원이 공통적으로 인간 나날의 삶에 긴요한 사항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구별해서 나타내도록 규정된 어떤 어법 장치가 그리스어와 서구어에는 없다. 마태복음 기사는 궁여지책으로 처음 세 가지 청원과 나머지 세 가지 청원을 각각 다른 형식의 문장으로 만들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절묘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택했다. 즉, 처음 세 가지 청원은 첫째와 둘째 청원문에 ‘윗점’(반쌍점)을 붙여 세 가지 청원이 한 가지 내용을 축으로 하여 급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했으며, 나머지 세 가지 청원문에서는 똑같이 완전 종지부를 붙이면서도 다섯째와 여섯째 청원문 초두에 ‘그리고’(καί)라는 등위 접속사를 붙여 이 세 가지 청원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했다.²¹⁾

그런데 우리말의 동사 용법에는 ‘...하며’라는 연결형과 ‘...하고’라

21) NTG는 여섯 개 각 청원 끝에 윗점을 붙여 놓았다. 이것은 아마도 주기도문 전체를 단 한 개의 문장으로 이해하려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라틴어 번역은 셋째 청원을 완전 종지부로 끝냈다. 또 넷째 청원과 다섯째 청원에만 쌍점(=colon)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여섯째 청원의 전반 청원 끝에도 쌍점을 붙였다. 그것은 여섯째 청원을 두 개의 독립된 청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본문비평 상의 문제가 아니다. NTG의 주기도문의 윗점을 모두 완전 종지부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만 처음 세 청원은 접속사 없이 나열되었고 나머지 세 청원은 접속사 ‘카이’(καί)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NASB, NAB, JB, CEV, NEB, ZB 등이 구두점을 처리한 방법을 참조하라.

는 연결형이 있다. ‘…하며’-연결형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 것과 이어주는 것이고 ‘하고’-연결형은 내용을 일단락 짓고 다음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역』은 우리말의 이 어법을 잘 활용하여 주기도문을 ‘…며 …며’와 ‘…고 …고’라는 이중 구조로 절묘하게 번역했다. 이것은 우리말만 가능한 탁월한 번역이다. 주기도문의 우리말 번역문은 문장 구조에서 원문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 번역 구조는 후대의 번역들, 예를 들어 『게일 역』, 『개역』, 『공동』, 『표준』, 『가톨릭 성경』에서 그대로 계승된다. 예외적으로 1967년 판 『새번역 신약』과 1992년 판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만이 여섯 개 청원을 각각 독립된 토막 문장으로 번역했다. ‘…며 …며’와 ‘…고 …고’라는 이중 구조로 주기도문을 번역한 것은 『구역』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공적이며 후대 번역에서도 보존해야 할 보화일 것이다.

2.3. 수동태 표현을 가능한 한 능동태 표현으로 바꾸었다

NTG 원문에서 그리고 영어 및 독일어 번역본에서 3:10의 세 동사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다. NAB, NIV, NRSV는 첫째 동사를 자동사로 번역했지만 RSV는 타동사의 수동태 형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구역』²²⁾은 이 셋 모두를 능동태 타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며 『게일 역』도 이 전례를 따랐다. 그러나 『개역』²³⁾은 첫째와 셋째 동사를 수동태로 번역하고, 둘째 동사만 능동태로 번역한 것은 일관된 번역의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5:21의 첫 번째 동사는, 원문에서는 ‘말하다’라는 동사의 단순 과거

22) 이제 독기를 나무 뿌리에 노릇스니 도흔 열기밋지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23)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수동태이다. 그러나 『구역』과 『계일 역』은 똑같이 ‘흐신 말씀’으로 번역했고,²⁴⁾ 『개역』도 ‘말한 바’라고 능동형으로 번역했다. 다음에 소개 되는 단락들도 같은 맥락이다. 5:27²⁵⁾, 29²⁶⁾, 30²⁷⁾, 32²⁸⁾; 6:30²⁹⁾; 7:7-8³⁰⁾, 19³¹⁾; 9:23²⁾; 10:19³³⁾, 30³⁴⁾; 12:31-32³⁵⁾, 37³⁶⁾; 17:22³⁷⁾; 20:18³⁸⁾;

-
- 24) “벧 사람의게 흐신 말씀을 너희가 드렸느니…”(구역)
 25) “또 흐신 말씀을 너희가 드렸느니…” 『계일 역』은 『구역』과 똑같이 번역했고 『개역』은 “또 간음치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로 번역했다.
 26) “네 빅테 중에 흐나를 일흔 거시 온 몸이 디옥에 싸지느 것보다 유익하고…”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단순 과거형 수동태이다. 『구역』과 『계일 역』은 능동태로 번역했지만 『개역』은 ‘던지우지 않는 것이’라고 수동태로 번역했다.
 27) “네 빅테 중에 흐나를 일흔 거시 온 몸이 디옥에 싸지느 것보다 유익하리라.”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들어가다’를 뜻하는 자동사이다. 『개역』은 원문의 이 자동사조차도 수동태 동사(‘던지우지 않는 것이’)로 번역했다.
 28) “또 누구든지 보린 너인의게 장가드느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완료형 수동태 분사이다. 『구역』, 『계일 역』, 『개역』 모두 똑같이 능동태 형으로 번역했다.
 29) “오늘 잇다가 릭일 아궁에 던지느 들 풀도 하나님 이러케 납히시거든…”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수동태 분사이다. 『구역』과 『계일 역』은 똑같이 능동태 형으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수동태 형인 ‘던지우느’으로 번역했다.
 30) 구하라 또흐 주실 거시오 차자보아라 또흐 맛날 거시오 문을 두드리라 또흐 열어주실 거시니 구하느이마다 엇을 거시오 차자 보느이가 맛날 거시오 두드리는이에게 열어주시리라.”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수동태 형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 『구역』과 『계일 역』은 이 셋을 능동태 동사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역』은 둘째와 셋째를 수동태 동사로 번역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31) 아름다운 열미를 밋지 아니하느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니”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수동태 형 동사이다. 『구역』과 『계일 역』은 능동태 동사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둘 다 수동태 동사로 번역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밋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32) 예수 | 그 사람들의 밋음을 보시고 반신불슈드려 닐으사되 쇼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구역』과 『계일 역』은 원문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했으나 『개역』은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33) “무슨 말을 흘가 넘려지말나 곳 그시에 무슨 말할 거슬 주시리니…” 『구역』, 『계일 역』, 『개역』이 똑같이 원문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34) “너희 머리털도 다 헤시느니” 『구역』과 『계일 역』은 능동태로, 『개역』은 능동

21:21.³⁹⁾

NTG 원문이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처럼 ‘기록하다’는 동사의 수동태를 사용했다. 『구역』과 『개일 역』은 이 문형을 모두 능동태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모두 수동태로 번역했다(2:5; 4:4, 6, 7; 11:10; 21:13; 26:24).⁴⁰⁾

‘선지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원문은 ‘말하다’의 수동태 분사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것을 『구역』과 『개역』은 똑같이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개일 역』은 2:15와 21:4는 『구역』과 『개역』

태와 수동태의 혼합형으로 번역했다. “...세신 바 되었나니.”

- 35) “모든 죄와 훼방하는 거슬 사람의게 샅하시려니와 성신을 훼방하흔 거슬 샅하시지 아니홀 거시오 쯔 누구던지 말노 인즈를 거역하면 샅하시려니와 오직 누구던지 말노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샅하시지 아니하리라.” 『개일 역』은 “...赦하심을 넘으려니와...赦하심을 넘지못하며...넘으려니와...赦하심을 넘지못하리라.”로 번역했다. 『개역』은 “...사하심을 얻되...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사하심을 얻되...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로 번역했다.
- 36) “네 말노 너를 의롭다하시고 네 말노 너희 죄를 덩하리라.” 『개일 역』은 『구역』처럼 능동태 분장으로 번역하되 ‘罪를 定하시리라’로 존칭어를 바르게 사용했다. 『개역』은 원문대로 수동태로 번역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 37) “예수 | 데자드려 닐너 굴으샤되 인즈를 장춧 사람의 손에 잡아주어” 『개일 역』과 『개역』은 원문대로 수동태로 번역했다. “...人자가 將次 사람의게 잡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위.”
- 38)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잡아준바 되매...” ‘잡아준바 되다’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개일 역』과 『개역』은 수동태로 번역했다. “...人자가 將次 사람의게 잡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 39) “...이 산드려 써서 바다에 싸지라 하여도 될 거시오” 『구역』과 『개일 역』은 똑같이 능동태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수동태로 번역했다. “...이 산드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 40) “...선지자로 이러게 기록하였스되...” 『개역』은 “...선지자로 이러게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등으로 번역했다. 『개역』도 4장 6절은 예외적으로 ‘기록하였으되’로 번역했다. 이것은 번역 원칙의 불철저성 때문에 생긴 결과일 것이다.

처럼 번역했으나 4:14는 ‘先知者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번역했다(2:15; 4:14; 21:4).⁴¹⁾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원문은 ‘기쁜 소식 전하다’(ευαγγελιζω)의 수동태 형과 ‘선포하다’(κηρυσσω)의 수동태 형을 사용하여 표현했는데 『구역』과 『게일 역』은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나 『개역』은 수동태로 번역했다(11:54²⁾; 24:14⁴³⁾; 26:13⁴⁴⁾).

또한 『구역』은 ‘이루어지다’라는 수동태 표현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2:15⁴⁵⁾, 23⁴⁶⁾; 13:35⁴⁷⁾; 26:54⁴⁸⁾).

‘일컬어지다’라고 표현된 원문의 수동태 문장을 『구역』과 『게일 역』은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하거나 그 표현을 생략하고 번역하기도 했다. 『개역』은 철저히 수동태 표현 그대로 번역했다(5:9⁴⁹⁾, 19⁵⁰⁾);

41) “...쥬씩서 선지자로 흐신 말씀을 일우려 흐심이니...”

42) “...간난한 이의게 복음을 전한다 하라.” 『게일 역』은 “...艱難한 者가 福音을 듯는다 하라.” 『개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3) “턴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야 모든 빅성의게 증거하 후에 쑤치 니르리라.” 『구역』과 『게일 역』은 원문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그러나 『개역』은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44) “...온 턴하에 어디셔턴지 이 복음을 전할제 이 녀인의 헝헝 일도 말하야...” 『게일 역』은 “...이 福音을 傳할 썩에 이 女人의 헝헝 일도 말하야...” 『개역』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야...”

45) “쥬씩서 선지자로 흐신 말씀을 일우려 흐심이니”(구역, 개역), 『게일 역』은 “先知者로 흐신 말씀을 일우도다.”로 잘못 번역했다.

46) “나사렛 사룸이라 칭하리라 흐심을 일우려호리라.”(구역, 개역), 『게일 역』은 “나사렛 사룸이라 稱하리라 흠이 일우니라.”로 잘못 번역했다.

47) “이는 선지자로 흐신 말씀을 일우려흐심이니”(구역, 개역), “이는 先知者로 흐신 말씀을 일우십이라.”(게일 역).

48) “이런 일이 잇스리라 흠을 엇더케 일우리오”(구역) “이런 일이 잇스리라 흠을 엇더케 일우겠느냐”(게일 역). 『개역』은 원문대로 수동태로 번역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49) “화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닐크를 거시오”(구역, 게일 역). 『개역』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21:13⁵¹⁾).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을 원문은 ‘일으키다’(εγειρω)라는 동사의 수동태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구역』, 『게일 역』, 『개역』은 똑같이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11:5⁵²⁾; 14:2⁵³⁾; 16:21⁵⁴⁾; 17:9⁵⁵⁾, 23⁵⁶⁾; 20:19⁵⁷⁾; 26:32⁵⁸⁾; 27:52⁵⁹⁾, 63⁶⁰⁾; 28:6⁶¹⁾, 7⁶²⁾).

‘일어나다’라는 뜻도 원문은 ‘일으키다’(εγειρω)의 수동태로 표현했으며 우리말 성경은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했다(1:24⁶³⁾; 2:13⁶⁴⁾, 14,

- 50) “...그 낫치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닐킴을 거시오”(구역),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개역), “...그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者는 天國에서 至極히 적은 者가 되겠고”(게일 역). 『게일 역』은 수동태로 표현된 문구 자체를 생각했다.
- 51)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개역), “...내 집은 祈禱하는 집이라 흐리라 하였거늘”(21:13, 게일 역),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여늘”(21:13, 구역). 『구역』은 수동태로 표현된 문구 자체를 생각했다.
- 52) 죽은 자가 살아나며
- 53)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니러났스니”(구역), “洗禮 요한이 죽었다가 復活함이 라”(게일 역),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개역).
- 54) “또 죽었다가 데삼일에 살아날 거슬”(구역), “죽임을 당하고 三日만에 復活할 일을”(게일 역),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개역).
- 55)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구역), “人子가 죽었다가 復活하기 前에는”(게일 역),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개역).
- 56) “더희가 죽이매 데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구역), “죽임을 당하고 三日만에 復活하리라 하시니”(게일 역),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개역).
- 57) “데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구역), “三日만에 復活하리라”(게일 역),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개역).
- 58)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구역), “내가 復活후에”(게일 역), “내가 살아난 후에”(개역).
- 59) “자던 성인의 몸이 만히 니러나디”(구역, 게일 역, 개역).
- 60)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흠을”(구역, 게일 역, 개역).
- 61) “그가...살아나셨으니”(구역), “그가...復活하셨느니라”(게일 역), “그가...살아나셨느니라.”(개역).
- 62)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구역), “그가 죽었다가 復活하시니”(게일 역),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개역).
- 63) “요셉이 잠을 깰 니러나서”(구역, 개역(일어나서)), “요셉이 잠을 깰”(게일 역).

20, 21; 8:15, 26; 9:5, 6, 7, 19, 25; 12:42; 17:7; 24:7; 25:7; 26:46).

우리말의 ‘이루다’는 타동사이다. ‘이루다’를 자동사로 잘못 사용하여 번역한 사례(2:17⁶⁵); 6:10⁶⁶)가 있다.

2.4. 전치사구(前置詞句)를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게 번역했다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독어, 불어 같은 인도 유럽 계통의 언어에는 전치사(前置詞)라는 고유한 품사가 우리말에는 없다. 그래서 이들 언어의 전치사구를 우리말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장소, 출발점, 지향점 등을 가리키는 전치사인 경우에는 우리말의 처격 조사(處格助詞), 시발격 조사(始發格助詞), 향진격 조사(向進格助詞) 등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⁶⁷)에서 ‘새에’,

- 64)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구역, 개역(일어나)], 『게일 역』은 ‘니러나’를 생략하였다.
- 65)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일우엇느니라”(구역), “先知者 예레미야의 말이 일우도다.”(게일 역), 『개역』은 ‘이루어졌느니라.’로 바르게 번역했다(2:17).
- 66) “쫓이 하늘에서 일운것 곳치 새에서도 일우어지이다.”(구역, 개역), “쫓이 하늘에서 일운곳치 새에서도 일우어지이다.”(게일 역). 여기서 ‘일운’과 ‘일움’은 각각 ‘일우어진/이루어진’, ‘일우어짐/이루어짐’이라는 수동태 형으로 바꾸어야 한다(6:10).
- 67) 1 헤롯 왕 새에 예슈씩서 유대 벧을네헬에서 나시니 박스들이 동방으로브터 예루살넬에 니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더의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넬이 듣고 소동흔지라 4 왕이 모든 제스제장과 빅성의 서기관을 모화 그리스도 | 어디서 낫겠뇨 () 무르니 5 골으되 유대 벧을네헬이오니 선지자로 이러케 기록하였스되 6 유대 새 벧을네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7장 적지아니호도다 네게서 님군이 나서 내 이스라엘 빅성을 기르리라 호섯느이다 7 이에 헤롯이 7만히 박스를 불너 별이 나타난 새를 주세히 못하고 8 벧을네헬으로 보내며 닐러 골으되 가서 아기를 주세히 차자 맞나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의게 경비하리라 9 박스가 왕의 말을 듣고 갈식 동방에서 보이던 그 별이 문득 압호로 인도호야 아기 잇는 곳까지 니르러 그 우에 곳치는지라...11 집에 드러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12 쑤에 헤롯의게로 도라가지말나 지시하시니 다른 길노 고국에 도라가니라(2:1-12).

‘벧을네험에서’, ‘동방으로브터’,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중에’, ‘네게서’, ‘벧을네험으로’, ‘동방에서’, ‘우에’, ‘집에’, ‘숨에’, ‘헤롯의 게로’, ‘고국에’라는 어구에 밀출 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지자로’와 ‘길노’의 ‘...로/노’는 구격 조사(具格助詞)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노/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은 다른 길을 방편, 수단, 도구로 이용하여 귀국했다는 뜻이다. 어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그 ‘선지자로’ 기록되었다는 말 속에는 그 선지자가 이 기록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행위 주체는 다른 분, 즉 하나님이나 성신이었다는 뜻이 내포된다. 『구역』과 『개역』이 이 어구를 ‘선지자로’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先知者가 記錄하였스디/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라는 『계일 역』과 『표준』의 번역은 명쾌한 이해에 기여하지만 원문에 담긴 의미를 훼손한다. 『새번역』과 『성경』의 이 ‘예언자를 통하여’라는 번역은 그리스어 전치사 ‘디아’(δια)를 우리말의 격조사(格助詞)로 처리하지 않고, ‘통하다’라는 동사의 변용형을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원문의 의미를 자구 그대로 살리려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 사용된 ‘통하여’라는 말의 동사 ‘통하다’가 우리말의 일상 용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말의 처격 조사에 대응하는 전치사의 대표적인 것은 ‘엔’(εν, in)⁶⁸⁾과 ‘에피’(επι, on)⁶⁹⁾다. 이 둘은 대다수의 경우에 구별 없이 단순히 처격 조사 ‘...에’로 번역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전치사가 이 처소의 특정한 부위(部位)를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할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엔’(εν)은 ‘...안

68) ‘엔’(εν)이 사용된 경우: ‘베들레헬에’, ‘광야에’, ‘그 땅에’, ‘마음에’, ‘하늘에’, ‘회당에’, ‘하나님 나라에’ 등.

69) ‘에피’(επι)가 사용된 경우: ‘성전 꼭대기에’, ‘땅에’, ‘침상에’, ‘보좌, 옥좌에’, ‘올리브 산에’, ‘모세의 자리에’ 등.

에’, ‘…속에’, ‘…중에’ ‘…가운데에’라고, ‘에피’(επι)는 ‘…위에’라고 번역해야 한다.⁷⁰⁾ ‘안’, ‘속’, ‘중’, ‘가운데’, ‘위’는 명사이다.

‘말하다’, ‘쓰다’ 그리고 주로 심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 앞에 붙이는 전치사가 있다. 이것은 그 동사와 그것의 목적어 사이에 개재하는 어떤 관련성을 나타낸다. 우리말의 격조사에는 이러한 전치사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치사가 사용된 어구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아기를** **크세히** **차자**’라는 어구는 ‘**찾다**’라는 동사가 그 목적어 ‘**아기**’를 가지면서 그 목적어 앞에 관련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페리**’(περι)를 붙여 놓은 것이다. ‘**찾다**’라는 동사를 ‘**탐색하다**’라는 동사로 대치하여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탐색하다**’는 그 사람의 몸을 구석구석 뒤지는 것을 뜻하며,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탐색하다**’는 그 사람의 몸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 즉 그 사람의 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어구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전치사를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도 없고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생략하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구역』, 『게일 역』, 『공동』, 『200』, 『표준』은 전치사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그러나 『개역』과 『새번역』은 ‘…에 대하여’, 『성경』은 ‘…에 관하여’라는 사용하여 번역했다. 이것은 우리말의 의미보다는 원문의 구조에 대응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일’과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는 일’은 그 아기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는 일을 뜻할지언정 그 아기 자체를 찾아내는 일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굳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

70) ‘성던 안에서’(12:5), ‘성던과 그 안에 계신’(23:21), ‘눈 속에’(7:4), ‘빈 속에’(12:40), ‘짜 속에’(12:40), ‘먹음 속에’(13:19), ‘구름 속에서’(17:5), ‘이 쇼즈 줌에’(18:10),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우에’, ‘반석 우에’, ‘모래 우에’, ‘바다 우으로’, ‘물 우으로’. ‘짜 우에 의인의 피를 흘린’, ‘제단과 그 우에 있는 모든 거슬’, ‘제 옷을 그 우에 언저매…그 우에 안즈시니’, ‘돌 하나도 돌 우에’. 한편 『구역』과 『게일 역』이 포도원 비유에서 21:3 전치사구를 ‘그 속에’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다. ‘그 안에’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해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치사를 생각해 원문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경우가 많다(9:36⁷¹); 18:19⁷²); 19:17⁷³); 20:24⁷⁴); 22:31⁷⁵), 42⁷⁶); 24:36⁷⁷)).

‘περι+목적어’가 ‘말하다’ 또는 ‘기록하다’는 동사에 연결되는 경우는 그 말함과 기록함의 행위가 이 목적어와 관련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되었다(11:10⁷⁸); 15:7⁷⁹); 21:4

- 71)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녀이샤’(9:36) 모든 우리말 번역들.
- 72) ‘짜에서 합심하야 무어시던지 구하면’. 오직 『새번역』만이 ‘무슨 일에 대해서는 지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영문법을 아는 세대의 구미에 맞는 가장 버터 냄새 풍기는 번역의 좋은 사례다.
- 73) “엇지 내게 착한 일을 못느냐”(구역, 개일 역, 표준, 성경),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내게 묻느냐”(새번역),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공동), “선행에 대해서 묻습니까?”(200).
- 74) “그 형제 두 사람을 분히녀이거늘”(구역, 개일 역), “분히 여기다”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개역, 새번역),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표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내었다.”(공동), “두 형제를 못마땅히 여겼다.”(200),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성경). 여기서 『새번역』만이 ‘...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대응어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나머지 모든 번역들은 원문의 전치사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 75) “죽은 자의 부활을 의문호일대”(구역, 개일 역, 개역),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새번역),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공동),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200),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표준),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성경). 여기서 『구역』, 『개일 역』, 『개역』만 전치사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 76) “너희 심각에는 그리스도 | 엇더홀이며 뉘 즈손이냐”(구역, 개일 역),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새번역, 공동, 표준, 성경),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개역). 『개역』만 ‘...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직역어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 77) ‘그 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모든 번역이 전치사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 78) “이 사람을 그르쳐 기록호였스디”(구역, 개일 역). 이 당시에는 ‘가리키다’와 ‘가리키다’의 구별이 없었다. 여기에 사용된 ‘그르쳐’는 ‘가리키다’의 뜻이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개역), “기록된 말씀은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새번역, 공동), “이 사람으로 말하면 ...라고 씌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200),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표준),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580); 26:2481). ‘페리’(περι)라는 전치사의 번역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전치사를 무시하고 번역한 것, 둘째, ‘…에 대하여’ 또는 ‘…에 관하여’로 번역한 것, 셋째, ‘…를 가리켜/그르쳐’ 또는 ‘…를 두고’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우리말 어법에 더 순화된 된 것이다. 왜냐하면 ‘관하다’라는 동사는 일상용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대하다’는 ‘마주하다, 상대하다, 응하다, 대항하다’의 의미로는 사용되지만 ‘대상으로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περι+목적어’ 부사구가 이 목적어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유익이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를 위하여’로 번역하기도 한다(4:682); 6:2583), 2884), 3485); 16:1186); 26:2887); 그 외에

이다.”(성경).

- 79) “이사야가 너희를 그르쳐 말하거니와 너희를 거시 올토다.”(구역, 계일 역),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개역),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한 예언이 들어맞았다.”(새번역),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다.”(공동), “이사야가 당신들을 두고 잘도 예언했습니다.”(200),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표준),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성경).
- 80) “이 비유를 드르매 너희를 그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구역), “이 비유를 드르매 너희들을 그르친 말씀인 줄 알고”(계일 역),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개역),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새번역),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공동), “그 비유를 듣고 자기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차렸다.”(200), “비유를 들어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표준), “이 비유들을 들어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성경).
- 81) 여기서는 ‘περι+him’이라는 부사구가 나오는데 『구역』과 『계일 역』과 『공동』은 전치사뿐 아니라 이 부사구 자체를 생략하고 “인자는 기록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로 번역했다. 나머지 번역들은 이 부사구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개역, 새번역), “인자는 자신에 관해 씌어 있는 대로 떠나갑니다.”(200),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표준),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성경).
- 82) “하느님이 너를 위하여 그 스자들의게 분부하시라”(계일 역, 공동 이외의 번역들), “하느님이 그 使者를 命함시어 너를 守護하시리로다.”(계일 역),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공동). 인용된 시편의 원문이 ‘너를 위하

도 요 5:32⁸⁸); 살전 5:25⁸⁹).

총평하면, 『구역』이 전치사 ‘페리’(περι)를 과감히 무시하고 번역하거나, 이 전치사를 ‘…를 가리켜’로 번역하는 등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어구를 ‘너를 위하여’로 번역해도 상관없지만, 그리스어 전치사 ‘페리’(περι)에 ‘위하여’라는 뜻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번역들은 중립적 의미로 “너와 관련하여”(concernig you)로 번역했다.

- 83) “목숨을 위하야 무어슬 먹을까…몸을 위하야 무어슬 닦을까”(구역, 게일 역, 새번역, 200, 표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공동),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성경).
- 84) “엇지 의복을 위하야 녀려하느냐”(구역, 게일 역, 개역), “어찌하여 너희는 옷에 대하여 염려하느냐?”(새번역),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공동, 200, 표준, 성경). 말 그대로 ‘의복을 위한다’는 것은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잘 손질하고 갈무리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의복을 위하여’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다. ‘옷 걱정을 하느냐?’가 적절한 번역이다.
- 85) “릭일 일을 위하야 녀려하지 말나”(구역, 개역, 새번역), “來日일을 念慮하지 말나”(게일 역, 공동, 200, 표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성경). ‘내일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86) “엇지 내 말한 거시 씩을 위함이 아닌줄을”(구역, 게일 역),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줄을”(개역), “내가 말한 것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새번역),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공동), “내가 빵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200, 표준, 성경). ‘빵을 위함’이라는 표현이 가장 서툴고 ‘빵을 두고’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 87)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구역, 게일 역 이외의 모든 번역들), ‘이거슨 언약하는 내 피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야 흘림이니라’(구역), ‘이거슨 言約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罪赦함을 爲하야 흘니는 거시라’(게일 역). 『구역』과 『게일 역』은 ‘여러 사람을 위하여’라는 부사구를 ‘여러 사람의’라는 형용사구로 바꾸고 ‘…를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죄 사함을 위하여’라는 어구에 통합시켰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 88) “나를 위하야 증거하는 이가 짜로 잇스니(요 5:32)”(200 이외의 모든 번역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200). 영어 성경은 NRSV, NIV, NAB, NEB만 ‘나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은 거의 모두 ‘나에 대하여/관하여’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위의 어구는 가치중립적으로 ‘나에 대하여/관하여’, ‘나를 가리켜/두고’라고 번역하거나 전치사를 무시하고 ‘나를 증언한다’로 번역하더라도 상관없다.
- 89)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야 기도하라(살전 5:25)’(우리말과 외국어의 모든 번역들).

했으나, 몇몇 군데 무리하게 ‘페리’(περι)를 ‘…를 위하여’로 번역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전치사구를 우리말의 처격 조사(處格助詞)나 구격 조사(具格助詞)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사적 설명어를 덧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4:490; 7:15⁹¹); 14:8⁹²); 24:30⁹³); 25:31⁹⁴).

형용사구로 사용된 전치사구를 번역할 경우에는 그 전치사구와 수식 대상 사이에 반드시 동사적 설명어를 추가해야 한다(5:16⁹⁵), 45⁹⁶); 6:197), 998); 7:399); 16:1100); 21:111¹⁰¹); 22:301¹⁰²); 23:181¹⁰³), 201¹⁰⁴), 211¹⁰⁵);

- 90) “사람이 떡으로만 살거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시라”(구역, 개역), “사람이 食物로만 살지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니라.” “떡으로 산다는 것”, “食物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떡을 먹고’, ‘식물을 먹고’ 산다는 뜻이다. “The Amerians live on bread, but the Koreans live on rice.”는 “미국인들은 빵을 먹고 살지만 한국인들은 밥을 먹고 산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 91) “양의 옷을 널고 너희에게 나아오나”(구역, 개역), “羊의 模樣으로 너희에게 나아오나”(계일 역).
- 92)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소서.”(구역, 계일 역, 개역).
- 93)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림흠을”(구역, 계일 역, 개역), “권세와 영광으로”라는 부사구도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9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텐스와 긋치 올때에”(구역, 개역); “人子가 自己榮光으로 모든 天使를 거느리고 올 때에”(계일 역). ‘영광으로’보다 ‘영광에 싸여’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 95)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 96)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 97)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 98)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99) 동심의 눈속에 있는 티…네 눈속에 있는 들보
- 100)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징조 보이기를 청하니.” 『로스 역』은 “하날에 징조로써 갈아치라 하니”로 번역했다.
- 101) “갈닐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로스 역』은 ‘가니리의 나살 잇 선지 예수라 하더라’로 번역했다.
- 102) 하늘에 있는 텐스와 긋치니라
- 103) 그 우에 있는 레물을 긋르쳐

24:16-17¹⁰⁶); 25:34¹⁰⁷), 41¹⁰⁸).

『구역』은 때로는 속격 형용사구를 동사적 서술어를 덧붙여서 번역했다(4:19¹⁰⁹); 6:26¹¹⁰); 14:14¹¹¹); 24:30.¹¹²) 부사구를 형용사구로 착각하여 잘못 번역하면서 동사적 서술어를 덧붙인 사례도 있다(21:16¹¹³), 19¹¹⁴).

『구역』이 남긴 번역상의 가장 큰 공적은 수동태 문장의 행위의 주체를 표시하는 어구를 본래의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역』은 수동태 문장을 가급적이면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이러한 경우 수동태에 표시된 행위 주체는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된다.¹¹⁵) 『구역』의 수동태 문장의 행위의 주체

104)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거슬

105)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를

106) 유대에 있는 사람...집을 위에 있는 사람...집안에 있는 물건...밭에 있는 사람

107) 오른 편에 있는 자...왼편에 있는 자

108) 오른 편에 있는 자...왼편에 있는 자

109) “사람을 낚는 어부.” 원문은 ‘사람들의 어부들’이다.

110)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원문은 ‘공중의 새들’이다. 『개역』은 원문대로 “공중의 새”로 번역했다. 『구역』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28절을 “들에 핀 빅합화가 엇더케 자라는가...”로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들의’라는 속격어구를 부사구로 바꾸어서 “들에 빅합화가 엇더케 자라는가.”로 번역했으며, 『개역』은 원문대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로 번역했다.

111) “그 중에 있는 병인을.” 원문은 ‘그들의 병자들을’이다. 『로스 역』은 “병 있는 자들”로 번역했다.

112) “사에 있는 빅성들이.” 원문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이다. 『개역』은 원문대로 “땅의 모든 족속들”로 고쳤다.

113) “어린 은혜와 젓먹는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게일 역』과 『개역』도 『구역』대로 번역했다. 후대의 번역들은 모두 원문대로 부사구로 바로 잡아 번역했다.

114)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허나를 보시고” 『게일 역』은 『구역』대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부사구로 바로잡아 번역했다.

115) “쥬피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1:22; 2:15), “모든 거슬 아버지피서 내게 주셨스 니”(11:27), “사람이 든든 고자도 있고”(19:12), “내 아버지피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 하셨던지 그가 엇을 거시니라”(20:23), “제스제장과 장로들이 송스 히 딕”(27:12).

를 표시하는 어구를 단 한번도 ‘…에 의하여’로 번역하지 않았다.¹¹⁶⁾ 행위의 주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에는 ‘…에게’로, 사물인 경우에는 ‘…에’로 번역하였고, 행위의 주체를 소유격 조사 ‘…의’로 표시하고 행위를 명사로 바꾸어서 번역한 사례도 있다.¹¹⁷⁾ 『게일 역』과 『개역』도 『구역』대로 번역했다.

2.5. 비유 이야기를 지칭하는 방식이 탁월하다

잠시 비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유로 표현하려는 구상어(具象語)가 낱말 하나인 경우라면, “그는 곰과 같이 미련하다.”처럼 어느 나라 말에서든지 설명하려는 주어와 설명의 예시물로 동원된 술어를 문장론적으로 연결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구상어로 동원된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라면, 어느 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려는 주어와 이야기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껏해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느 하나의 명사를 골라서 “…는 무엇과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무엇’이라는 명사에 형용사절을 붙여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웅색한 방법뿐이다. 이러한 형식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낱말 비유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런데 『구역』은 이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국은 마치 맛해 곰초인 보화를 사름이 맛나매 숨기고 깃버혀야

116) “이에 헤롯이 박스의 게 속은 줄을 알고”(2:16), “요한에게 세례를 밧으니”(3:6), “요한에게 세례를 밧으려 ㅎ신디…내가 맛당히 그대의 게 세례를 밧을 터인 테”(3:13,14), “성신에게 잇쓸니여…마귀의 게 시험을 밧으실식”(4:1), “외식하는 쟈가 늘의 게 영광을 엇으라고”(6:2), “바람에 움지이는 갈대나”(11:7), “바가 바다 가온디 잇서 물결에 요동 ㅎ은 바람이 거슬 님이라.”(14:24), “너희가 내 일ㅎ을 위혀야 모든 빅성들의 게 귀움을 밧으리라.”(24:9).

117) “후에는 쫌디 업서 밧게 버려 사름의 뽏힘이 되리라.”(5:13), “브림을 넙고 사름의 게 뽏히리라.”(게일 역),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뽏힐 뽏이나라.”(개역), “그가 제 어미의 식힘을 듣고 글으디”(14:8).

도라가서 제 잇는 거슬 다 팔아 그 밧출 삼과 갓흐니라”(13:44). 원문¹¹⁸⁾은 “천국은 밧에 감춰져 잇는 보물과 같다”는 문장이 나오고, 보물이라는 낱말에 형용사절을 붙여서 전개한다. 『구역』의 번역은 천국은 이 이야기에 담긴 사정 전체와 같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것은 원문보다 더 탁월한 표현 방식이다. 이것은 번역문이 원문보다 더 훌륭한 사례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구역』이 이룩한 이 훌륭한 번역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했다. 『게일 역』과 『개역』은 똑같이 “천국은 마치 밧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로 번역했다. 이것은 원문의 구문 형식을 따르려는 잘못된 노력이다. 그 후의 모든 현대적 번역들은 『게일 역』과 『개역』의 이 잘못된 선례를 그대로 답습한다.

이어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13:47-50) 역시 마찬가지다.¹¹⁹⁾ 원문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다. 『구역』은 그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천국과 관련시켰다. 이것은 『구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말의 놀라운 문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한 번역 방법은 『구역』 자체 안에서도 관철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유 번역에서 원문의 구문 형식에 얽매어 번역했기 때문이다.¹²⁰⁾

118) *Ὅμοια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θησαυρῶ κεκρυμμένῳ ἐν τῷ ἀγρῶ, οὗ εὐρῶν ἀνθρώπος ἐκρύψεν,...*

119) 47 쯔 텃국은 밧치 그물을 바다에 치고 모든 물고기를 몰아서 48 그물에 그득흐매 언덕으로 싣을어내고 안져서 도흔 거슨 그릇에 담고 못된 거슨 버림 갓흐니 49 세샹 쫓헤도 이리케 되리니 텃스가 와서 의로운자 쯔에서 악흔자를 갈나내어 50 풀무 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슣히 울며 니를 갈니라(13:47-50).

120) 마태복음 22:1-14을 보라. “1 예수 | 다시 비유로 말씀흐야 골으샤되 2 텃국이 엇던 님군과 갓흐니 그 아들을 위흐야 혼인 잔치를 베풀고 3 그 쯔을 보내며 청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흐엇더니...14 대개 청흔을 밧은자는 만흐되 틱흔을 님은자는 적으니라.”

3. 맺음말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거의 빠짐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주의 기도 문은 약간의 어구상의 수정은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틀은 『구역』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특히 ‘…며 …며’와 ‘…고 …고’라는 이중 구조로 구성된 우리말 주의 기도문은 원문보다도 더 잘 구성된 것이라 자부할 수 있다. 물론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의식문의 오역된 부분도 『구역』의 번역문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성서 문서들의 명칭과 성서 인물의 이름도 『구역』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역』의 후예들이다.

『구역』의 장점들 중에서 첫째로 꼽을 것은 우리말다운 문체라고 할 수 있다. 『구역』은 지금까지 출간된 우리말 성서 가운데서 번역투의 냄새를 가장 적게 풍긴다. 『구역』은 우리말의 여러 가지 동사 연결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토막토막의 문장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문장으로 재구성해 냈다. 이러한 『구역』의 문체를 낭독체 문체, 판소리체 문체, 유려체 문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으로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성서의 원문 자체가 토막토막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의 문체를 모든 성서 번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생애적인 우리의 고유한 성향을 충족시키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구역』 투의 문체로 번역된 성서를 곁들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계승해야 할 것은 수동태 문장을 우리말로 될 수 있는 대로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과 피동으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서구식 냄새를 풍기지 않는 우리말 어투로 번역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형용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을 우리말답게 풀어쓰는 기술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주요어>

성경전서, 게일 역, 개역, 번역 원칙, 수동태, 능동태, 성서 번역, 우리말, 문체

<Key Word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Gale Translation, Korean Revised Version, Translation Principle, passive, active, Bible Translation, Korean, Stylistics

* 접수일 2010년 3월 2일, 수정일 2010년 3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0년 4월 6일

약어

- 『구역』: 『신약전서』, 조선/경성: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개역』: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
『계일 역』: 『新譯 新舊約全書』, 京城: 基督教彰文社, 大正 14/1925.
『공동』: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개정판) 1999.
『로스 역』: 『예수성교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6, 1995 복쇄.
『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새번역신약』: 『새번역 신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7.
『200』: 『신약성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성서, 서울: 분도 출판사, 1992.
『표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표준개정』: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6.
-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
KJV King James (1611/1769)
NAB The New American Bible (1970)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0/1971)
NEB New English Bible (1961)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9)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NTG²⁷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Nestle-Aland)

<초록>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

- 『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

김창락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성경전서』(이하 『구역』)는 최초의 한국어 신·구약 성경전서이며, 한국 교회의 공인을 받은 최초의 성경이다. 이 『구역』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구역』의 번역상의 공과를 연구하여 새로 나올 번역에서 그 장점은 계승하고 과오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표는 『구역』의 번역상의 원칙을 탐구하고, 새로운 번역상의 원칙 수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구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논의한다. 번역상의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고, 그 원칙이 적절히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갈 것이다.

『구역』의 첫째 장점은 우리말다운 문체다. 『구역』은 지금까지 출간된 우리말 성서 가운데서 번역투의 어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우리말의 여러 가지 동사 연결형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토막토막의 문장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물 흐르듯 흘러가는 문장으로 재구성해 냈다. 이러한 『구역』의 문체를 낭독체 문체, 판소리체 문체, 유려체 문체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인들이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성서의 원문 자체가 토막토막의 단문(單文)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구역』의 문체를 모든 성서 번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생래적인 우리의 고유한 성향을 충족시키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구역』 투의 문체로 번역된 성서를 곁들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역』의 둘째 장점은 수동태 문장을 우리

말로 될 수 있는 대로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번역한 점과 수동태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서구식 문체를 따르지 않고 우리말 어투로 번역한 사실이다.

이렇듯 『구역』은 비교적 초기의 번역본이지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층 명확하고 수준 높은 번역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역이 가진 장점을 철저히 수용해서 더욱 다듬어진 번역상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translation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ospel of Matthew:
It's Contributions**

Chang-Nack Kim

(Emeritus professor of the Theological Seminary, Hanshin Univ.)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is the first Korean New and Old Testaments which was the first authorized version in Korean Church.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s used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and to suggest a new translation principles based on our thorough evaluation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deal with the contributions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which can be succeeded to the contemporary translators of the Bible.

The first contribu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can be found in its style in terms that it is just like our native language. We may say that among the Korean Bibles that have

been published so far,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includes the least translation style in arranging words in a given sentence. The separated sentences are tied into and reconstructed to a sentence that flows like water via having good command over the variety of Korean postpositional words for connecting verbs. We can call this writing style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a reading style, a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ong style, or a smooth and elegant style. It is unreasonable to uniformly apply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style to all the translations of the Scriptures both because the modern people have a tendency to prefer a concise sentence and because the original Scripture itself is constructed with simple sentences. However, in terms of fulfilling and preserving our (Korean) inherently unique propensity, it is desirable to use the Bible translated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style additionally.

The second contribu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is found in the fact that passive sentences are translated to active ones whenever possible in Korean, and further that even when passive sentences are translated to the same passive, our (Korean) literary style is employed instead of the Western's.

In this way,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has diverse contributions despite being a translated version in a relatively initial period in the church history. To produce an even more clear and highly qualified version in the future transl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ystematic translation principles which could express an elegant native Korean language by thoroughly taking advantage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